

보도	2023.10.16.(월) 조간	배포	2023.10.12.(목)	
담당부서	조사2국	책임자	국 장	이승우 (02-3145-5650)
	공매도조사팀	담당자	팀 장	심재호 (02-3145-5636)
	금융투자검사국	책임자	국 장	김진석 (02-3145-7010)
	검사기획팀	담당자	팀 장	최상두 (02-3145-7012)

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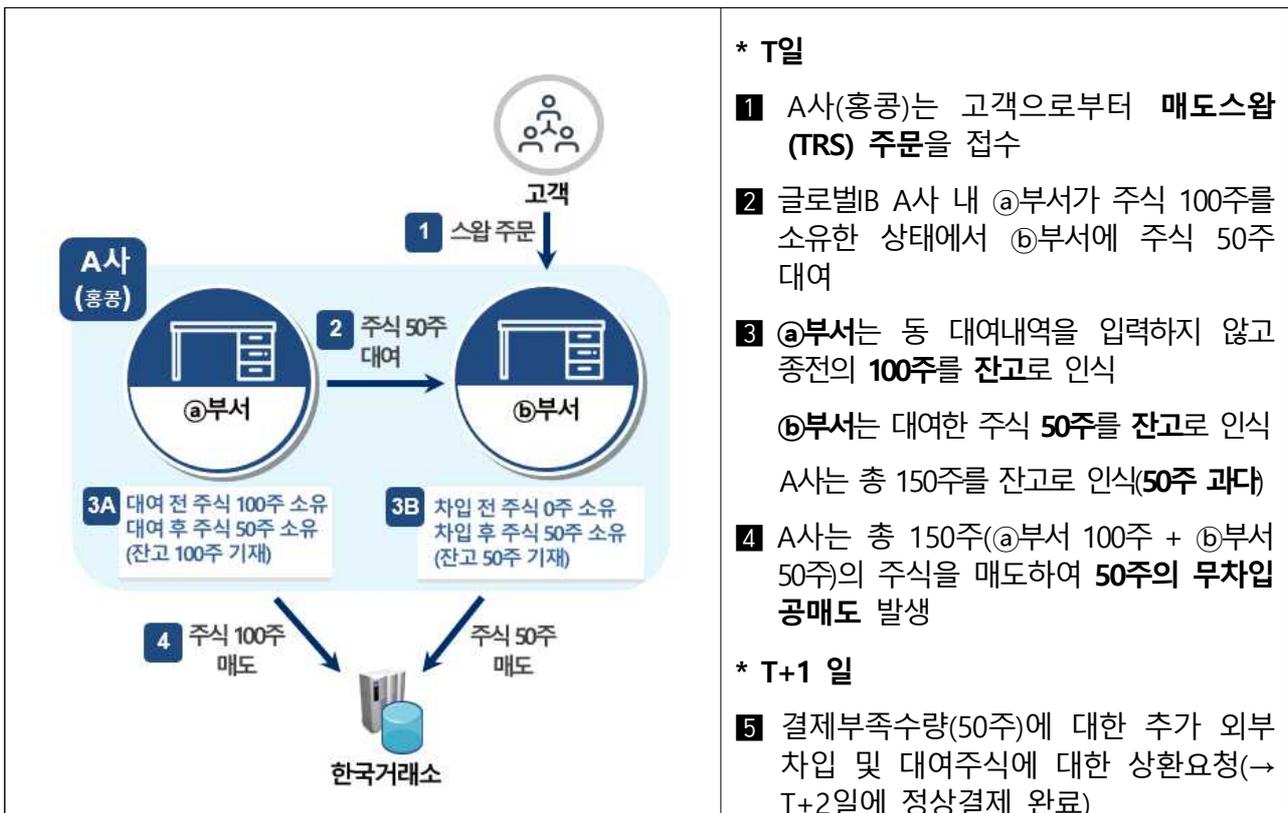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(‘22.6월) 및 조사팀 전환(‘22.8월)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
 - * (붙임) ‘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’ 참조
 -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.
-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,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(매도스왑)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*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로
 - *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동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
 - 당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였습니다.
-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.
 - 향후 유사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, 수탁 증권회사의 위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II. 주요 혐의 내용

1. A사 관련

- 홍콩 소재 A사는 2021.9월 ~2022.5월 기간 중 ○○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.
 - A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(대여)하는 과정에서
 -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*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.
- * 예시 : ㉠ 부서가 ㉡ 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㉠ 부서는 (종전의)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
-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(T+1)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.



□ 또한,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하였습니다.

- 동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·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였으며,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*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결제 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.

* 프리매치(Pre-match) 과정 : 국내 보관은행이 T+1~T+2 12시까지 위탁자의 매매내역, 주식잔고 및 결제지시서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"결제승인" 이전의 확인 절차

2. B사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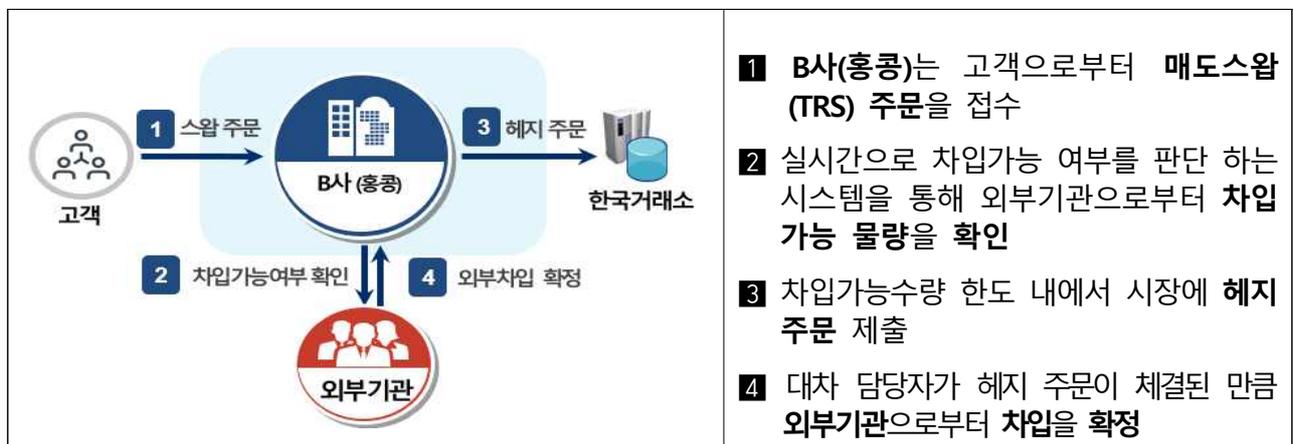
□ 홍콩 소재 B사는 2021.8월~2021.12월 기간 중 △△△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.

-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

-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(공매도주문)을 제출하였습니다.

-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하였습니다.

※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, 동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·운영



III. 향후 계획

① **(엄중조치)** 이번 사건은 PBS업무(Prime Brokerage Service)*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로

* 고객(개인.기관투자자, 헤지펀드 등)에게 증권의 대여, 차입, 중개, 신용공여, 장외파생계약 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

-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선위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 조치대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.

② **(불법공매도 조사확대)** 금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-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중이며,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- 특히, 필요시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*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,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* 금융위.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의 EMMoU 정회원으로서 최근까지 해외 감독당국(예: 홍콩 SFC)과 공조하여 자금출처 확인, 정보교류 등 활발한 국제공조를 수행

③ **(국내 증권사 검사강화)**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,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는 바,
-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,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**(공매도 전담반 설치)**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'22.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'22.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·개편(4명→8명)
 -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

- **(조사 및 조치실적)** '22.6월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93.7억원* 및 과태료 21.5억원 부과(총 115.2억원)
 - * 자본시장법 개정('21.4월)으로 '23.3월 최초 과징금 부과
 - 아울러,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조사하여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무차입공매도 등 고의적 공매도 거래*를 최초로 적발
 - * 주가 하락을 위해 매도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무차입상태에서 고의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차익 극대화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 행위

< 공매도 위반에 대한 연도별 조치 현황(무차입 공매도) >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.9월*
위반자수(외국인)	4(4)	14(14)	28(25)	30(21)
과태료·과징금	7.3	8.0	23.5	104.9

※ 추가로 23년중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25명(외국인 4명)에게 과태료 7.8억원 부과

- **(외국계 증권회사 간담회)** 외국 투자자들의 반복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'23.9월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의 간담회 개최
 - 외국 투자자 및 증권회사에 불법공매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고,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잔고관리 관련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